

19세기 콜롬비아 사회와 호르헤 이삭스의 『마리아』

배 지 완
고려대학교

Bae, Ji-Wan. (2002). La sociedad colombiana del siglo XIX y *María* de Jorge Isaacs. *Revista Iberoamericana*, 13, 131-147.

La novela *María*(1867), única novela de Jorge Isaacs, se considera como la representante de la novela romántica en América Latina. El fondo y la historia están basados en las reminiscencias literarias europeas y la propia biografía del autor. En la novela destaca la naturaleza armoniosa en convivencia con un orden social jerarquizado y pacífico. Se considera con frecuencia que el paisaje en *María* tiene por objeto representar el estado de ánimo del protagonista Efraín, como en la tradición del Romanticismo. Según muchos críticos, la novela romántica se caracteriza como el producto del siglo XIX, cuando América Latina se desliza políticamente hacia la anarquía después de la independencia.

En Colombia, el período de 1810 a 1862 comprende los años de formación de la nueva República y se caracterizó por el conflicto y la crisis. Colombia proclama su independencia en 1810 y la consolida en 1819 con la batalla de Boyacá. Después entra en una serie de guerras civiles entre los liberalistas y los conservadores. Este conflicto entre dos partidos es el germen del problema político en la Colombia actual, llamado "Violencia".

María se puede considerar como una novela que trata del tema del amor entre dos jóvenes en el paraíso perdido y como un prototipo de la novela del Romanticismo sentimental: la historia del amor y la muerte. Sin embargo, Williams agrega que esta novela se publicó para sustentar el proyecto ideológico conservador y crear, particularmente, los valores estéticos comparables a los europeos y a los que las clases media y baja del país se habían acostumbrado, y que al fin había logrado describir a Colombia como

una verdadera Arcadia Heleno-Católica. El autor trata del problema social como ideología, etnia, raza y religión que caracteriza a las culturas latinoamericanas, especialmente, colombiana. En América Latina hay una relación estrecha y directa entre la historia, política y ficción, y el amor sentimental de la novela sirve como paradigma para su construcción.

I. 들어가며

18세기 유럽의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중남미의 낭만주의가 크게 유행 하던 시기는 19세기중반부터이다. 유럽에서의 낭만주의 출현은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걸친 변화에 기인한다. 이는 당시 산업혁명, 부르주아지의 탄생, 정치와 경제에서의 자유주의의 대두 등에서 비롯된 사회제도의 재조정이라는 혁명적인 대변혁이다. 낭만주의는 사회, 경제, 정치, 철학, 종교 등을 포함하는 인간의 삶의 방식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뜻한다. 유럽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적 상황은 유럽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낭만주의는 1830-40년경에 라틴 아메리카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의 중남미는 1825년에 독립전쟁을 종결하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직후이다. 정치적으로 체계적인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무정부상태라는 끝없는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되는 시기이다. 19세기의 중남미는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식민지제도의 많은 특징들이 대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전히 라티퐁디오가 존속하고 있었고 계급의 특권이 보존되었으며 노예제도도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독립을 향한 애국심들은 부와 권력에 대한 개인이나 계급적 이익으로 변질되어 갔고, 이러한 상황은 각국에서 필연적으로 폭력과 전쟁을 잉태했다. 당시 활동했던 낭만주의자 후안 비센페 곤잘레스는 독립이후 19세기의 통곡할 만한 역사로서의 중남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중남미여! 이 무슨 모습이란 말인가! 불안한 단기 정부들. 정의와 신중함으로 질서와 신뢰를 세우는 소수의 법제자들, 권력에 올라 잘못된 정열에 아첨하며 그것을 권력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법제자들. 보호한다면서

민중을 타락시키고 사회 모든 요소를 파괴하는 또 다른 이들. 전제주의에 대항하여 등장해 방종을 세우는 어떤 이들. 방중에 대항해 등장하고는 전제주의를 세우는 이들. 시민전쟁과 사회전쟁들, 대장들, 말만 잘하는 정치가들, 급진적인 정부들. 끝없는 내란이다. 무질서 속의 삶과 죽음 속의 희망들. 정의롭고 강한 법제자들이 필요하지만, 나약하고 공포하는 법제자들이 존재한다. 신중하고 강한 사람들을 찾고 있지만 남자들이 없다. ... 이것이 중남미이다.¹⁾

이렇게 19세기의 중남미는 사회불안, 내전, 독제로 점철되었으며, 정치적인 공백은 지방호족들이 지역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의 장이 되기도 한 혼란의 시기였다. 이러한 무정부시대는 그러나, 동시에 중남미 각국이 독립국가를 형성하여 국가 체제를 정립해 나가기 위한 산고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독립국가 형성시기에는 스페인의 식민지적 유산의 청산과 새 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중남미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유럽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과 문인들은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회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렇게 예술을 그들의 개혁사상의 도구로 삼은 대표적인 예는 아르헨티나의 에스페반 에체베리아, 후안 바우티스타 알베르디, 도밍고 파우스띠노 사르미엔토와 베네수엘라의 페르민 토로 등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²⁾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전 중남미에서 19세기에 유행하던 낭만주의 소설

1) Oscar Sambrano Urdanete. *Literatura Hispanoamericana I*, Caracas, Monte Avila Editores, 1991. p.165.

2) 중남미의 사회적 낭만주의자들은 프랑스혁명가인 클로드 생 시몽 Claudio Saint-Simon(1760-1825)과 카를 푸리에 Calos Fourier(1772-1837)를 공상적 사회주의의 아버지로 여기고 정의와 형제애의 이름 하에 사회 변혁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들은 사회적인 권력 남용과 가난한 자들의 비참함을 고발했다. 사회주의와 생시몽주의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주의에 심취했던 에체베리아의 『사회주의 교리 Dogma Socialista, 1837』, 알베르디의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정치 기구를 위한 원리와 출발점 Bases y puntos de partida para la organiza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Argentina, 1852』, 사르미엔토의 『파군도 혹은 문명과 야만 Facundo o Civilización y Barbarie, 1845』 토로의 소설 『순교자들 Los mártires, 1842』과 같은 작품들은 작국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을 펴려한 글들이다.

형식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콜롬비아 작가인 호르헤 이삭스의 유일한 소설인 『마리아(1867)』를 손꼽을 수 있다. 처음 『마리아』는 900부가 인쇄되었는데, 출판 백년을 맞이한 1967년에는 150쇄가 출판되었고 영어, 불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이 작품은 또한 드라마나 영화로 수없이 각색되었고 17개의 모방작도 있으며 부분적인 에피소드는 수없이 차용됐다. 루벤 다리오 Ruben Dario는 앙리케 라레타 Enrique Larreta의 『돈 라미로의 영광 La gloria de Don Ramiro』과 함께 중남미의 가장 훌륭한 두 작품 중 하나로 손꼽았으며, 우나무노는 59살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마치 15살 먹은 것 같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중남미의 고전으로 꼽히는 소설이다.³⁾ 본 논문에서는 콜롬비아에서 펼쳐지는 독립 이후 낭만주의라는 시대적 환경을 점검해 보고 19세기 감상적 낭만주의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불리는 콜롬비아 작가 호르헤 이삭스의 소설 『마리아』를 통해 19세기의 콜롬비아 사회현실이 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는가와 낭만주의 소설 장르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II.1 나의 사랑 콜롬비아

소설 『마리아』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19세기 콜롬비아의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풍토를 언급하고자 한다. 콜롬비아는 1810년 독립을 선언하고 1819년 보야카 전투로 독립을 강화하였다. 1810년부터 1862년까지의 기간은 새로운 공화국의 형성의 시기이며 동시에 보수파와 자유파의 끝없는 반목의 시기였다. 독립을 쟁취한 후 식민지 제도 때부터 누려왔던 문화, 사회 경제적 이익을 고수하려는 보수주의자들과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건국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보수파와 자유파들은 국가적 통합과 이익보다는 자신의 지역과 계급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내적인 분열을 초

3) Isaccs, Jorge. *María*, Edición y introducción de Donald McGrady, Madrid, Editorial Catedra, 1998. p.13-14

래하여 대립은 시민전쟁으로 이어졌으며, 다시 독재 정치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당간의 끝없는 대립과 반목은 “폭력 Violencia”라고 불리는 현재 콜롬비아의 정치적 상황의 뿌리가 된다.

19세기 콜롬비아에 존재했던 문화적 유산은 스페인 군인들의 귀족문화에 기원을 갖고 있다. 그들의 가치들은 스페인 정부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식자계층들은 스페인 귀족에 포함되지 않은 채 귀족계층에 도달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19세기 콜롬비아 상류계층은 식민지 300년 동안에 심어진 스페인적 가치를 수용했다. 이 시기에 소설을 경시하는 예는 18-19세기 유럽에 지식인들의 태도와 비슷했다. 19세기 콜롬비아는 유럽의 문화적 가치를 모방하거나 수용하였는데, 특히 프랑스, 스페인, 영국에 주류를 이루었던 문학 형태들을 선호했다.⁴⁾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출판된 소설들은 아주 소량에 불과했는데, 왜냐하면 수많은 전횡정치의 젊은이들이 소설 한 권을 출판하고 정치나 귀족주의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소설을 쓰는 것은 여가를 위한 것이나 아니면 지적이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콜롬비아에서 소설을 언급할 때 다른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문학 비평가 학술회, 학계가 상류계층과 대학의 엘리트들과 카톨릭 교회라는 소수 지배 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문학과 사회권력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소수 지배 집단에 의한 문학 비평은 그리스, 로마 고전과 철학에 대한 연구를 포함했으며, 남성에게 의해서 지배되었고, 합법적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즉 그들은 분석과 학문적 탐구 이상의 칭찬의 담화를 사용하여, 이 소수집단은 문학적인 가치를 제도화했고, 작품을 쓰는 이들에게 작가로서의 명성을 부여했다. 일반적으로 소설가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었고 비평가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소설이라는 장르가 사상적인 요소와 상류계층의 정책 그리고 엘리트들에게 의미 있게 협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장르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정치적인 수필은 오히려 아주 중요한 장르였다.

당시 콜롬비아 지식인들, 그들이 조망했던 두 가지 사상은 <자유주의 유

4)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이 스페인문화를 거부하거나 영국문화에 대해서 무지할 당시 콜롬비아, 특히 안디노지방에서는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Raymond Williams, *Novela y poder en Colombia*, 1844-1987, 2ª ed. op. cit.

토피아>를 추구하는 자유파와 <헬레니즘적 카톨릭 아카디아>를 추구하는 보수파였다. 그러나 양당 간의 사상적인 차이는 전쟁터로 옮겨졌고 1841년, 1851-52년, 1854년, 그리고 1859-62년 내란으로 이어졌다. 1810년과 1862년 사이에 약 24권의 소설이 출판되었는데 이는 1편의 소설이 출판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소설 생산에 있어 절대적인 빈곤한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는 예이다. 사실 독립 이전까지 콜롬비아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중남미에서 소설이라는 장르가 발달할 제도적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문학은 검열에서 통과 가능한 시와 종교적 성격의 극들만이 제한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해방된 19세기 중반의 콜롬비아에서는 100년 전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문학에 대한 개념에는 글쓰기가 창조적인가 혹은 상상적인가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다. 초기에 작가들은 소설가가 아니라 작가들이었고, 그들 모두는 소설뿐만 아니라 정치, 역사, 철학적 연설에 참여하였다. 그 작가들은 상상적이기보다는 유토피아나 아카디아에 대한 사상적 목적을 향해 있었으며, 그들은 각각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서 콜롬비아의 이데올로기를 만들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⁵⁾

콜롬비아 국가 형성시기에 소설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중의 하나는 사상적인 목적을 위해 창작을 버리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실천하는 도구로 수필이나 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서 아르볼레다는 자신의 시에서 누에바 그라나다의 식민지 영토에서 <헬레니즘적 카톨릭 아카디아>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빅토르 위고의 정치 이념을 존경했지만 『레미제라블 Los Miserables』 같은 그의 작품을 소설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조차도 가난한 문맹의 대중을 대변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풍속주의자들은 올바른 취향과 공통된 문화형태를 민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활발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경향은 지배계층 안에서 사회의 중하류 계층을 정리할 필요에 부응했다. 호세 마리아 베르가라 이 베르가라 José María Vergara y Vergara 의 가장 유명한 풍속소설, 『세 개의 잔 Las tres tazas』은 보고타 중상류의 풍속을 회화

5) Raymond Williams, *Novela y poder en Colombia 1844-1987*, 2ª ed. Bogotá, Tercer Mundo Editores, 1992. p.51

하고 동시에 보편적 문화와 교양(Buen gusto)의 원리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가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펠리페 페레즈 Felipe Pérez의 『아가씨들의 도서관 Biblioteca de señoritas』(1858), 『엘 모사이크 El Mosaico』 등이 당시 유포된 출판물들이다.

1863년은 자유주의자들이 집권하여 콜롬비아 합중국이 탄생하였고 절대연방제를 표방했다. 같은 해 헌법이 제정되었을 때 모스퀘라 Mosquera와 그의 정부는 <자유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들은 지난 날 지배적이던 <헬레니즘적 카톨릭 아카디아>를 표방하던 보수파들을 제거하고, 독립적인 주 변방체제를 구성하는 자치제를 표방했다. 1863년에 자유파에 의해 제정된 반기독교적이고 완전한 자유주의적 방식을 표방한 헌법은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내란을 유발한다. 이 시기는 소설 『마리아』가 쓰여지던 시기와 일치한다. 1880년 이들의 경제개혁의 결과는 지주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혔고 결과적으로 이전의 제도를 갈망하는 시골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향수 어린 소설들이 유행하게 된다. 이 시기에 30여 편의 소설이 출간되기도 했으나 다른 장르와 식민지의 고색창연한 문학이 누리던 인정을 “국가소설”들은 누리지 못했다. 보수파들이 중심이 된 문학그룹 <엘 모사이크 El Mosaico>는 그들이 필요한 신용할 수 있는 인물들을 영입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호르헤 이삭스였던 것이다. 이삭스는 이 그룹에서 활동 후 그란 카우까(Gran Cauca)지역으로 돌아가 그의 유일한 소설 『마리아』를 집필한다(1867).⁶⁾

일반적으로 소설 『마리아』는 19세기 말 감상적 낭만주의 소설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소설은 전형적인 감상적 낭만주의 소설의 규범을 따르고 있고 독자들은 이 감상소설의 비극적인 요소에 가슴아파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소설은 당시 유행하던 감상적 낭만주의 소설과 공통된 점을 많이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선남선녀의 사랑과 죽음, 남자주인공들의 시점에서 여주인공들의 모습이 묘사되며 여성들이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며 작품의 이름이 된다는 것이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 소설이 당대 유럽에서 크게 유행하던 소설 베르나르탱 드 생 뽀에르의 『폴과 비르지니』나 라마르틴의 『그라시엘라』, 샤또브리앙의 『아달라』의 이야기를 모방

6) 이삭스는 이미 1864년 『시 Poesía』를 출판한 시인이었다. 그의 사후에 발견된 육필 원고들은 1985년에 『민중들의 노래와 민요 Canciones y coplas populares』로 발간되었다.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을 낭만주의 소설, 특히 감상적 낭만주의 소설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 소설에는 낭만주의 소설적 특징과 함께 사실주의 소설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사실주의에서도 풍속주의적 경향이 드러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루이스 레알은 낭만주의와 중남미 풍속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풍속주의는 중남미 모든 문학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사실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풍속주의는 낭만주의 운동이다. 풍속주의자는 자신의 국가나 지역의 고유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개별적인 것을 표현한다. 색채적인 기록, 지역적인 색채, 주변의 특성, 인물들의 개성 등은 낭만주의적 특징이다.⁷⁾

18세기 이전부터 독립 이후 중남미가 스페인의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유럽으로부터 사상적 문학적 영향을 직접 받기 시작했으나 중남미의 풍속주의는 스페인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중남미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들로는 프라이 헤룬디오 Fray Gerundio (Modesto Lafuente, 1806-1866), 세라핀 에스떼바네즈 Serafin Estebanez Calderón(1799-1867), 로만 데 메소네로 로마노스 Román de Mesonero Romanos(1803-1882), 마리아노 호세 데 라라 Mariano José de Larra (1809-1837), 그리고 베드로 안토니오 데 알라르콘 Pedro Antonio de Alarcón(1833-1891) 등이 손꼽히고 있다. 중남미의 풍속주의는 독립 후 19세기라는 시대적인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풍속주의 주제는 민중에 대한 것과 현실에서 관찰되는 결점과 해악에 대한 비평, 독립에 막 진입한 새로운 사회에서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 속에 나타나는 정치적 미성숙에 의해 부양되었다.⁸⁾

앙헬 플로레스는 중남미의 낭만주의 소설에서 사실주의와 풍속주의라는

7) Luis Leal, *Historia del cuento hispanoamericano*, México, Ediciones de Andrea, 1956.

8) Estuardo Nuñez, prólogo de, *Tradiciones Hispanoamericanas*, Caracas, Biblioteca Ayacucho, 1979, p.9.

이중적 경향이 함께 드러나는 원인은 스페인의 영향이며 동시에 스페인과 중남미의 사회와 작가들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작품들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는 동일한 작품에서 한꺼번에 나타난다.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에서 지속적으로 꽃피우고 있는 풍속주의는 종종 낭만적 요소와 사실적 요소를 혼합한다. 이러한 이중성 — 낭만적 요소와 사실적 요소의 혼합 — 은 흔히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소설이라고 하는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의 출작 『빠리끼로 사르니엔도』로부터 콜롬비아 소설의 효시인 뽀사다의 『낮』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 이러한 이중성의 근원은 분명히 심리적인 것이며, 스페인의 위대한 전통으로 — 과거의 페르난도 데 로하스, 로페 데 베가, 케베도, 엘그레코, 세르반테스, 고야, 페레스 갈도스 같은 화가나 작가에게로 —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이중성은 무엇보다도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의 불안정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들은 생활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충 작품을 마무리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혼신의 힘을 쏟아야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 그 결과 작품에 이질적 요소들이 뒤섞여 있고 엉성한 작품도 종종 눈에 띈다.⁹⁾

19세기 중남미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아메리카의식(Americanidad)의 강화이다. 이는 스페인이나 유럽의 문학적 영향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독립뿐만이 아니라 지적인 독립을 추구하려는 중남미인들의 자주적인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중남미 고유의 토착적인 주제들이 등장하게 되며 전통주의(Tradicionismo) 혹은 전통(Tradición)이라는 중남미 고유의 새로운 문학장르도 탄생하게 된다. 토착성과 풍속주의는 모데르니즘의 등장으로 쇠약해지다가 크리올리슴 Criollismo 안에서 유지되며 『도나 바르바라』, 『소용돌이』, 『돈 세군도 솜브라』 같은 지역소설에서 꽃피우게 된다.

당시 소설은 국가건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한 장르가 아니었으며 동시에 지식인들의 직업도 계층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 소설이 많은 경

9) 앙헬 플로레스, “이스파노아메리카 소설에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의”, 『마술적 사실주의』, 우석균, 박병규 옮김, 한국문화사, 서울. pp. 79-80

우 전형적인 감상적 낭만소설로 평가되는 이유는 소설 속에 사회적 분쟁과 인종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설을 낭만주의 소설과 라틴아메리카에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하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 안에서 이해하게 될 때 전혀 다른 해석에 도달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 소설은 19세기 후반기의 콜롬비아 사회를 이해하게 되는 전형적인 소설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이삭스가 살았던 콜롬비아 정치적 현실은 자유파와 보수파의 끊임한 정치적 싸움과 끊임없이 계속되는 내란이 전개되고 있었던 사회였다. 전쟁과 정치문제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는 이 소설은 전형적인 낭만주의 소설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콜롬비아 사회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결론이 가능한 이유는 작가 역시 보수파로서 내란에 직접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19세기의 전형적인, 행동하는 낭만주의자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소설이 보수파에 속하는 <엘 모사이코>와 비평가 베르가라 이 베르가라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서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레이몽 윌리엄스는 이 소설의 근본목적을 다음과 같이 단언하고 있다.

소설 마리아는 보수파의 사상적 계획을 지지하기 위하여 특히 유럽과 비교할 수 있는 미학적 가치를 지닌 소설과 중하급 계급 사이에 급히 소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발간되었다.¹⁰⁾

따라서 당시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소설은 보수파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회제도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평화스런 낙원의 모습으로 그려짐으로써 오히려 보수파가 집권하던 이전 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자유파가 지배하는 전쟁 중인 콜롬비아 현실에 대한 환멸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11.2. 나의 사랑 까우카

자유파와 보수파의 끝없는 대립이 콜롬비아의 정치적 문제를 야기한다면 크게 드러나는 사회적인 문제점 중의 또 하나는 지역주의이다. 콜롬비아의

10) Raymond Williams, *op. cit.* p.51

넓은 국토와 고도와 산맥이라는 지형적인 문제는 교통문제를 유발하여 식민지 시대 때부터 동서남북 각 지역 간의 상이한 역사적 인종적 배경을 가지게 된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남부 콜롬비아에 위치한 그란 카우카(Gran Cauca)의 중심은 바예 데 카우카(Valle del Cauca)이다. 이 지역은 남쪽으로 1535년 건설된 뽀빠얀(Popayan)이라는 지역과 북쪽으로 초꼬(Choco)라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혼합된 문화적 전통이 발달해 왔다. 식민지 시대부터 뽀빠얀은 문자문화의 지식인들의 거점이었다. 20세기가 훨씬 지난 후에도 카우카사회는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문맹이라는 계급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그란 카우카의 역사적 문화적 평가는 복잡하다. 19세기 소수의 문학적 엘리트 집단을 가지고 있던 칼리(Cali)는 20세기에는 발달한 산업도시로 변모했다. 초꼬에는 강한 아프리카 전통이 존속되어 왔고 전 지역에서 원주민의 존재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19~20세기에는 국가에서 가장 커다란 집단이었다. 그란 카우카의 인디오와 흑인의 거주민들은 16세기부터 스페인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왔으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착취와 몰살의 희생자들이었다. 1511년 경 스페인 사람들은 초꼬에서 금광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금 채굴에 흑인노예들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16세기 중엽 15만이라는 다수의 아프리카인이 북부의 항구도시 까르타헤나의 노예분배지에 도착하여 그란 카우카의 뽀빠얀으로 보내졌다. 광산에서 도망한 흑인노예들에 의해서 건설된 팰랭게스(Palenques)라고 불리우는 거주지는 당시 콜롬비아 지리에서 흔히 존재하던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란 카우카(Gran Cauca) 전 지역에 상당한 흑인 거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초꼬에서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8-19세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노예농장들이 유명했고 이러한 농장주들의 우아한 삶이 여러 형태로 『마리아』나 팰라시오(Palacios)의 『왕의 기수 *El Alférez real*』과 같은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마리아』 속에서 콜롬비아는 아주 목가적이며 전형적인 낙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현실은 주인공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소설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사라져 버리고 있는 봉건사회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대농장의 주인인 아버지는 부성애적인 자애로움이 넘치는 가장으로 권위와 사랑으로 가족과 하인, 흑인 노예, 해방노예들을 대하고 있다. 흑인 노예들은 그들의 농장 생활에 아주 만족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농장주인에 대해 감사와 충직한 태도를 갖추고 있

다. 오히려 작가는 작품 속에서 가부장제도와 카톨릭이 지배하는 사회 제도와 자연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보수파가 지배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당시 정부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타파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

당시 독자들의 취향, 전통적이고 유럽적인 감상성이 드러나는 낭만주의적 기호와 신대륙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져 있다. 콜롬비아의 현실에서 낭만적인 주인공에 의해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는 끝없는 내란이 계속되는 어두운 현실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행위처럼 보인다. 대농장을 경영하는 남부지역의 대지주들과 새로이 형성되는 상인들, 지식인들, 그리고 이들과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사회하층민인 흑인노예와 원주민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란 까우까의 구술적이고 세 인종의 혼혈적 문화는 『마리아』의 내적인 요소이다. 작가는 에미그디오(Emigdio)와 같이 문맹의 시골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그들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일상적인 표현을 그대로 서술함으로써 사실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종들의 결혼식 장면이나 의복, 사냥풍습, 가옥구조, 흑인들의 음악과 미신 등의 당시의 풍속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가장 많이 흑인들의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은 해방된 흑인 노예인 아프리카 공주 출신, 펠리치아나가 임종을 앞두고 침상에서 아프리카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XL-XLIII), 오히려 이 장면은 펠리치아나가 교양 있는 스페인어를 사용함으로써 흑인과 원주민의 구술문화보다는 지식층의 문자문화와 낭만주의 전통 속에 나타나는 이국적 풍경을 드러내기 위한 삽화로써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호르헤 이삭스는 작품의 곳곳에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1851년에 노예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의 흑인 노예들의 생활이라는 당시 사회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작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노예제도에 대한 작가의 입장은 펠리치아나의 운명을 동정하면서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듯하나 동시에 만족스러운 노예들의 모습만을 묘사함으로써 현실성을 떨어뜨리고, 그들을 개종시키거나 모두 신앙심이 깊은 노예들로 묘사함으로써 보수파들의 노예제도에 대한 입장과 보수파들이 추구하는 기독교적 질서를 묘사하고 있다.

『마리아』에서 이삭스는 지상 낙원의 색채로 자신의 고향 그란 까우까 지역을 미화하고 있으며 <헬레니즘적 카톨릭 아카디아>의 주제에 대한 지역적인 한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낭만적이고 시적 언어로 잘 쓰인 이 소설은

당시 유럽에서 대유행하던 유명한 소설들의 모티브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유럽 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사상적 요소들을 훌륭한 형태로 달성하여 당시 시대적 요청에도 부응하고 있다. 이 작품의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중남미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정의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호르헤 이삭스라는 이 상류층 작가가 진정한 <헬레니즘적 카톨릭 아카디아>를 묘사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¹¹⁾ 자유로운 자치주를 추구하던 자유파의 유토피아에 대항하여 보수적인 아카디아파들은 통합된 카톨릭 정부를 만들고자 했는데 보수파들의 입장이 국가적인 두 작품, 이삭스의 소설과 베르가라 이 베르가라 Vergara y Vergara¹²⁾의 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물론 이 소설이 출판된 1867년 이후 이삭스는 자유파에 합류하지만 『마리아』는 보수파의 이상주의를 상징하는 모델로서 존속하게 된다.

작가의 조국에 대한 관심은 단지 자신의 출신지인 까우카 지방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콜롬비아 남부의 부에나 벤뚜라 항구, 부에나 벤뚜라에서 다구아를 거쳐 까우카까지 이르는 지역과, 보고타, 파나마, 쿠바와 도미니카 등의 카리브지역, 런던, 심지어는 서부 아프리카까지의 넓은 지역을 소설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명의 언급과 묘사는 소설의 사실성을 배가시키면서 작가의 관심이 단지 남녀간의 사랑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11) 당시 콜롬비아 소설의 열악한 상황은 호세 마리아 베르가라 이 베르가라가 1867년에 『누에바 그라나다의 문학사 *Historia de la literatura en Nueva Granada*』를 출판했을 때 20년대 이후, 이미 30여 편의 소설이 출판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편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문학의 전통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보수적 사고의 전형적인 노력이었다. Raymond Williams, *op. cit.*

12) 4년 후 1871년 베르가라 이 베르가라는 콜롬비아 언어학술원 *Academia Colombiana de la lengua*를 세우고 국가적 계획에 의거한 국가적 언어를 정착시키려고 한다. 이 시대에 보수파에 속하는 베르가라 이 베르가라의 문학적인 활동상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문학적 전통이 부재한 콜롬비아에 문학을 기술했고 작가들을 발굴하여 문학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삭스는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보수파로서 지식인 사회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마리아』에 대해 비평을 해 줌으로서 이삭스는 문단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던 것이다.

II.3. 나의 사랑 마리아

만일 이 작품이 다른 중남미 다른 나라들의 낭만주의 소설에서처럼 자유롭고 새로운 국가의 이상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면 주인공들의 사랑은 생산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이상적인 커플로서의 두 주인공은 비극적 종말을 맞고 있는데, 도리스 숨머는 여주인공 마리아가 유대인이라는 인종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 표면적으로 소설의 비극적 종말까지 구체적인 인종적 분쟁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인종적 문제는 그녀가 인종적 계급적 화해로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콜롬비아 사회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상류사회에서는 인종적인 흠으로 작용했으며, 여기에 그녀는 또 하나의 결혼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녀와 에프라인의 사촌이라는 관계는 근친상간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당시 지배계급, 귀족계급에게는 용인되지 못하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호르헤 이삭스가 콜롬비아 남부의 이민 2세대로써 농장주의 아들이면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을 기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당시 지배계급 사이에 존재했던 인종적 갈등의 상징으로 보인다. 에프라인의 아버지가 마리아에게 “우리들의 종족 Nuestra raza” 이라고 하는 장면은 간접적으로나마 이삭스가 자신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부분으로 보인다.

소설 속에서 마리아가 에프라인의 도움을 받아 책을 읽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당시 자유파와 보수파사이에서 전개되던 민중교육에 대한 논쟁을 시사하고 있다.¹⁴⁾ 『마리아』에서는 당시 사회의 한 단면들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에프라인의 유럽 유학, 노예제에 기반한 농장, 유대교의 개종 문제, 상업활동과 사상문제 등 당시 콜롬비아 사회제도에서 중요한 사안들이었으며 보수파에 속했던 작가의 입장은 에프라인이나 마리아 등의 등장인물들의 태도에 의해 반영되고 있다.

13) Sommer, Doris. *Foundational Fictions-The National Romance of Latin Americ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p.188

14) 윌리엄스, p.44

III. 맺는 말

호르헤 이삭스는 바예 데 까우까의 지주계급에 속했고 초년에는 “보수당”에 가입했다. 그리하여 1854년 17살의 나이에 떼하다(Tejada) 장군의 보수파의 군대에 입대하여 멜로(Melo)의 독재정치에 대항하여 싸우기도 했다. 6년 후에는 모스께라(Mosquera) 독재정권에 대항해서 싸웠으며, 1860년도에는 깔리(Cali)의 다리에서 치뤄진 전쟁에 참여했다. 1864년 보고타로 사업차 여행하게 되었을 때 호세 마리아 베르가라 이 베르가라(José María Vergara y Vergara)를 알게 되어 그의 추천으로 문학그룹 <엘 모사이코>를 소개받아 활동한다. 1864년과 65년에는 정부의 직책을 맡게 되지만 당시 그의 주된 일은 『마리아』를 집필하는 것이었다. 1866년 국회에 보수파에 의해 진출하였으나 그의 사상적 관심은 자유주의를 향하고 있었다. 1867년 『마리아』를 출판하고 1868년 급진파의 사상적 전환을 한다. 그의 남은 인생은 자유주의에 속하게 된다. 정치에 직접적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대중교육을 변론하고 원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다.¹⁵⁾ 죽기 2년 전에 그는 『까밀로 혹은 검은 영혼 Camilo o alma negra』와 『파니아 Fania』라는 역사소설을 시작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당시 콜롬비아에서 전통적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행해져 오던 불문물처럼, 한 편의 문학작품 발표로 정계에 진출한 또 다른 경우로 보여질 수도 있는 호르헤 이삭스의 삶은 19세기라는 시대적 인물로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다간 전형적인 낭만주의적 인물이었다.

호르헤 이삭스의 소설 『마리아』의 경우 주로 감상적 낭만주의로 그 경향을 한정하여 연구되어 왔다. 작가는 그의 소설 『마리아』에서 보수파적 정치적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그의 작품은 동시에 당시 지식인과 문학인들이 해방 이후 불모의 문학적 토양에 새로운 문학적 전통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의 하나로서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단순한 유럽 낭만주의 소설의 모방을 뛰어 넘어 독립국가 형성시기의 정치적 이상과 지적인 독립과 전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콜롬비아의 현실문제를 반영하고 토착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작품의 주요 모티브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한낱 어린 소년 소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기가 아닌,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어린 시절과 고향에 대한 사랑과 향수를 넘어 보수주의자

15) 그는 콜롬비아 해안에 사는 원주민들에 대한 연구인 『막달레나의 토착 종족들 *Las tribus indígenas del Magdalena*』를 출판한다.

로서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실현되길 염원하는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마리아』는 사회적 낭만주의 소설은 아니지만, 당시 콜롬비아가 자유주의 정부였다는 사실과 끝없는 내전의 상태였다는 현실과 작가가 보수파 사상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반사회적인 소설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남미 문학에서 낭만주의의 사회적 실천적 경향을 고려한다면 단지 이 작품을 현실과 유리되거나 자연과 개인적인 사랑에 도피를 추구하는 문학이라고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남미의 낭만적 개념에서 문학의 기능은 확실히 식민지 이후 독립국가형성의 과정에서 정치의 정립의 기능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남미의 낭만주의는 특별한 역사적 상황의 결과로서 평가할 수 있다. 이 역사적 상황은 과거 식민지역 사와의 단절과 진보와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새로 탄생한 공화국 형태의 국가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중남미인들의 책임 혹은 소망 혹은 욕망까지도 투영되어 있으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이후 국가형성에서 산고를 겪는 19세기 중남미가 작품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우석균, 박병규. 『마술적 사실주의』, 한국문화사, 서울.
- Carilla, Emilio. *El romanticismo en la América hispánica*, Madrid, Editorial Gredos, 1975.
- González Stephan Beatriz. *La historiografía literaria del liberalismo hispanoamericano del siglo XIX*. Cuba, Casa de las Americas, 1987.
- Isaccs, Jorge. *María*, Edición de Donald McGrady, Madrid, Editorial Cátedra, 1998.
- Leal Luis, *Historia del cuento hispanoamericano*, México, Ediciones de Andrea, 1956.
- Núñez Estuardo, prólogo de, *Tradiciones hispanoamericanas*, Caracas, Biblioteca Ayacucho, 1979
- Porrás Collante, Ernesto. "Complementación en la estructura de María",

- Tesaurus*, 31, 1976, pp.58-83.
- Sambrano Urdanete, Oscar. *Literatura Hispanoamericana I*, Caracas, Monte Avila Editores, 1991.
- Sommer, Doris. *Foundational Fictions-The National Romance of Latin Americ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Tittler, Jonathan. *Violencia y Literatura en Colombia*, Madrid, Editorial Orígenes, 1989.
- Varios. *Manual de Historia de Colombia*, Bogotá, Procultura. 1982.
- _____. *Manual de literatura colombiana*, Tomo III, Bogotá, Procultura S.A. 1988.
- Williams Raymond, *Novela y poder en Colombia 1844-1987*, 2^a ed. Bogotá, Tercer Mundo Editores, 1992.